

대전문화재단案 허리가 부실하다

현 계획은 단순 市 대행조직 民官융합 구현위한 재편을

대전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이 뼈대를 드러냈다. 대전시의 대전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은 대체로 좋은 내용으로 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은 “근래에 본 문화재단 기획서 및 로드맵 가운데 최고의 기획안”이라며 “조직도의 직제와 역할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세 명의 팀장, 직원들 사이에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편 재단의 문화정책 제시 및 체계화를 담당할 사무처장이 대전문화재단 조직도에 빠져 있는 점을 전문가들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효석 단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조직이 작아도 초기부터 사무처장을 뽑아 조직과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은 꼭 필요하며, 사무처장은 재단의 문화정책 연구와 제시를 담당해야 한다”고 대전시에 충고하고 있다.

이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 역할 및 자산 확충을 위한 모금 등을 주로 담당할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조직과 사업의 체계화·안정화를 맡을 인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 대전시의 복안대로 세 명의 팀장 가운데 한 명을 수석팀장으로 임명해 사무처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임무와 위상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외부에서 시 희망대로 인정할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욱이 재단의 정책연구 및 초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사무처장이 없을 경우 결국은 문예진흥기금 등을 직접 지원해 오던 대전시의 기능을 단순 대행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전시 지원업무를 대행할 조직이라면 연간 5억원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기금 지원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했더라도 일각에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할 공간이 큰 만큼 사고와 철학,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팀장급 인물이 이를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상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즉 대전시의 대전문화재단 안(案)은 전체적인 모양새는 좋지만 ‘허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허리가 튼실해야 제대로 기능하고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인물을 대표이사 및 사무처장으로 뽑을 것인가. 대전지역 문화예술계를 잘 아는 한편 문화정책 및 지원에 있어 뚜렷한 철학과 전문지식, 경력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면 된다. 이런 요건에 전문가인 척하면서 정치권 로비만 열심히 하거나 그동안 담당해온 공연·축제 기획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한 사람, 도박 등에 손을 댄 사람 등은 뽑지 않으면 된다. 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역 문화예술계 몇 명만 위촉해 다면평가 식으로 점검해 보기만 해도 금세 결론이 나온다.

대전문화재단 설립관련 조례안의 경우 대전시가 간섭할 여지를 너무 많이 장치해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환 대전문화연대 운영위원(변호사)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 이념은 ‘민간의 문화 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국가나 관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

다”면서 “대전시의 간섭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민간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지역의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대전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계 지원 및 창작의욕을 제대로 자극하는 버리 역할을 하려면 민(民)과 관(官)이 함께 가는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업무의 단순대행이라면 대전문화재단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 자산의 대부분을 시가 낸다고 하겠지만 결국 시의 출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도 하다. 출범 때부터 사무처장을 뽑고 거버넌스 체제에 부합하는 틀을 갖추면 된다. 그게 선진적인 문화 도시를 구현한다는 취지에도 맞다. 대전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대전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넓히고 창작욕구를 자극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류용규<취재2부 문화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